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겨우내 움추렸던 생명이 기지개를 켜는 3월입니다. 춥고 외롭던 겨울의 시간을 잘 이겨내고 맞이하는 봄은
우리의 마음을 설렘과 기대로 가득차게 합니다.

이 새로운 봄이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따스한 품으로, 부드러운 음성으로 다가와 앞으로의 시간들을 기쁨과
감사로 가득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와 물질로, 또 사랑 가득담은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로 부족한 저희에게 용기를 주시며 선교케냐에 늘
함께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상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조금만 더 힘을 내시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체험
하는 동역자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3월 케냐에서
안경열, 이해란 (예준, 예성, 예림) 선교사 드림

+ 영혼의 아름다운 건축가 +

지난 한달 동안 후반기에 있을 예배당 건축을 위한 창고와 교회 부엌을 건축했다.

이번 건축은 기술자를 고용하지 않고 현지 목회자 그리고 몇몇의 일꾼들과 함께 직접 건물을 지었다.

어깨 너머로 본 것이 전부이고 생전 처음 하다보니 하는 일마다 실수투성이었다.

그러다보니 수없이 못을 박았다가 다시 빼기도 하고, 쌓아던 것을 허물고 다시 쌓기도 하고, 만들었던 것을
해체했다가 다시 만드는 등 실수를 할 때마다 뒤통수가 어찌나 따가운지^^;;; 또 (날씨도 더운데)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어찌나 미안한지... 일을 하다가도 숨고 싶을 때가 수도 없이 많았다.

앞으로 새로운 성전 건축을 계획하고 있는데 내심 현지 목회자 얼굴에 수심이 깊어 보인다. 또 성전까지 손수
짓겠다고 할까봐 걱정하는 듯 하다. 그래서 웃으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성전지을 때는 좋은 기술자
고용해서 짓겠다고 하니 그제서야 어~휴 다행이다 라는 미소를 띤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한번 손수 지어 보겠다는 열심에 하나님께서 지혜와 은혜를 주셔서 교회부엌과 창고건물을 완공할 수 있었다.

앞으로 이곳을 시작으로 이 지역에 복음의 영향을 끼치고 사랑으로 지역 사회를 섬길 수 있는 선교구심점이 되는 선교센타를 구축하고자 한다.

(1) 지금의 예배당은 출석하는 성도수에 비해 너무 협소하므로 앞으로 더 많은 성도들이 함께 말씀과 떡을 나눌 수 있는 새로운 예배당 건축, (2) 지역교회(시찰회) 연합 사역을 위한 어린이 청소년 캠프, 여전도회와 목회자 세미나를 숙식하며 할 수 있는 숙소 건축, 그리고 (3) 지역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꿈을 심어 줄 수 있는 꿈도서관 건축 계획을 갖고 있다.

좋은 건물을 얻기 위해서는 좋은 설계와 좋은 건축자재 사용 그리고 좋은 일꾼들의 손이 필요하고 이 모든 구상들은 좋은 건축가로부터 나온다.

이렇듯 우리 영혼을 계획하시고 만드시는 분이 완벽하신 건축가 하나님이기때문에 우리의 영혼과 사역들이 주안에서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질 것으로 믿는다.

+ 주와 같은 분 없네 +

음제(남자 어른을 존칭하는 말)와 함께 교회일을 하고 있는데 양과 염소를 치러 나갔던 음제의 딸이 울상이 되어 아빠에게 왔다. 그 이유는...

음제의 딸이 양과 염소를 치고 있는데 코끼리 떼가 나타나서 양과 염소를 흐트러 트러 그만 양과 염소를 잃어버리게 된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음제는 하던 일을 멈추고 곧장 양과 염소를 찾으러 갔다.

시간은 흘러 양과 염소를 찾으러 떠난 음제가 다행히도 잃어버린 모든 양과 염소를 찾아 돌아왔다. 비록 코끼리때문에 잃었던 양과 염소를 찾아야 하는 수고가 있었지만 모두 찾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고백을 들을 수 있었다.



선교사역을 하다 낙심되는 일을 만났을 때 나는 누구에게 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을 어떤 이유나 실수로 잃어버리는 안타까움이 있을 때 나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또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재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선교사역 가운데 있어 울며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때 그 눈물을 훔쳐주시며 등을 토닥토닥 두드리시며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고 우리 아버지 인것에 큰 위로를 받는다.

+ NDOTO SCHOLARSHIP(은도토 장학회) +

케냐는 코로나로 인한 수개월간의 휴학을 끝내고 지난 12월부터 부분 개학하여 지금은 전학년 모두 학교에 다니고 있다. 롱게르데드교회에도 기숙학교에 다니던 학생들이 집을 떠나 공부하고 있다. 그런데 얼마전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어야 할 두명의 여학생이 교회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닌가! 갑작스레 교회에 출석한 친구들 모습에 반가우면서도 염려가 되어 물었다. 아니나 다를까... 수업료 미납으로 학교에서 돌려보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케냐 학교에서는 수업료를 내지 못하면 집으로 돌려보낸다.)



수업료 미납으로 집으로 돌아온 아이들의 모습이 어찌나 안쓰러운지 그냥 지나 칠 수 없어 미납된 수업료를 납부해 주었다.

간호사와 목회자가 되는 것이 꿈인 아이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가 공부 할 수 있게 되니 두학생의 얼굴에 환한 미소로 가득하다.

교회에서 학생들을 만날 때마다 "열심히 공부해라!

열심히 기도해라! 그리고 열심히 놀아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꿈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라"고 말한다.

그들이 열심히 기도하며 공부하고 열심히 놀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꿈을 키워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꿈을 접은 학생들의 꿈을 다시 펼쳐줄 수 있는 통로가 되기를 바라면서 꿈장학회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 그들이 돌아온다! +

삼부루 남자 청소년들이 몰려온다.

청소년 시기에 교회 출석한다는 것은 한국이나 케냐나 똑같이 쉽지 않는 것 같다.

롱게르데드 교회에도 남자 청소년이 없었는데 언제부터인지 남자 청소년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제법



많은 아이들이 출석하고 있다. 이 나이쯤의 남자 청소년이라면 축구를 좋아하는 것은 전세계적으로 공통이라는 생각에 함께 축구를 시작했다. 아직 정리 되어 있지 않은 교회 앞 공터에서 연습용 유니폼을 입고 맨발 혹은 고무타이어 신발을 신고 열심히 축구를 한다. 아직은 작고 초라한 축구팀이지만 언젠간 이들도 멋진 유니폼을 입고, 축구화를 신고 신나게 경기할 그날을 기대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청소년 시기인 그들이 교회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 감사하다. 주님의 집에 머물며 주님의 은혜에 흠뻑 젖어 그들의 영혼도 인생도 멋져지기를 기대하며 기도한다.

지금과 같은 시기에 우리는 어디에 머물고 있어야 할까? 생각해 본다. 그리고 주님 안에 머물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원한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고후6:2)





<▲ 도서기증 > <책 읽는 아이들>



<◀ 여자청소년 위생용품 나눔 ▶>



♥ 함께 기도해요 ♥

1. 주님께서 룡게르데드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 만나주시고 예배의 부흥과 회복이 일어나는 한 해가 되게 하소서.
2. 룡게르데드 교회에 보내주신 청소년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3. 금년 하반기 성전건축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소서. 성실한 일꾼들을 만나게 하시고 성도들도 마음을 모아 협력하여 은혜로 지어지는 예배당 되게 하소서.
4. 꿈도서관의 도서기증, 여자 청소년을 위한 위생용품사역, 청소년 장학사역, 어린이 영양제 공급사역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도록 채우시고 인도하소서.(문의 카톡ID akrlhr73)
5. 한인교민사회와 선교사회에서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료시설이 열악한 이곳에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케냐의 선교사님들 나아가 전 세계 흩어져있는 선교사님들을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소서.
6. 코로나 3차유행이 시작된 케냐사회가운데에서 저희 아이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건강하게 감사함으로 생활하게 하소서.